

진정한 '건강'은

'투쟁하는 보살'의 생명에

생명이 건강해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토대가 됩니다. 우주대의 생명을 자신의 몸에 각지 할 수 있습니다. '병'이란 '인간 생명이라는 장(場)의 혼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승교에서 권대승교로, 점차적으로 생명의 혼란을 조정하고 조화시켜 단련해서 최후에는 법화경에 의해 '불로불사의 대생명력'을 설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흔히들 ‘너무 바빠서 지쳤다’고 말하는데 ‘너무 바빠서 지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러므로 건강할 때 '복덕'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만큼 쌓는 편이 이득입니다. 불법은 지혜입니다. 건강은 지혜입니다. 불석신명이라 해도 '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불법은 도리입니다. 도리에 맞는 '현명한 신심즉생활'이 아니면 반가치(反價値)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창가(創價)'학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략)

'수면'이란 일종의 '작은 죽음'입니다. 대우주라는 생명의 바다에 일단 심신을 윤택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 휴식에 의해 생명력이 충전되어 내일의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생명력의 충전입니다. 늙거나 병든 몸은 일단 우주생명의 '소생의 바다'로 돌아가 산뜻하고 새로운 건강한 몸으로 되는 편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심의 상태, 숙업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약왕보살의 신심’을 관철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는 더욱 복운 넘치는 생명으로, 태어나고 싶은 곳에 자유자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대우주의 어디에, 어느 계(界)로 녹아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계’에 융화되어 가면 설사 언제 죽는다 해도 ‘영원한 대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로불사’의 경애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지막이 삼악도, 사악취라면 덧없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보면 50년이나 70년의 차이는 ‘순간’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석존도 말하고 있습니다. “불사(不死)의 경지를 보지 못한 채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불사의 경지를 보고 하루를 사는 편이 훌륭하다.”고.

삼세의 생명에서 본다면 ‘불사의 경지’ 즉 ‘불계’ ‘신심’ 이라는 것을 금세에서 어디까지 확립했는가 - 그것이 진정한 ‘장수였는지 아닌지’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스페인 여자부장의 ‘황금의 청춘’

SGI회장 : 스페인 지부가 생겼을 때(1976년), 스페인 초대 여자부장은 고바야시 준코(小林順子) 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파란만장한 청춘을 정열적으로 살고 서두르듯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황금의 궤적(軌跡)은 지금도 여전히 찬란하게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씨는 도쿄 시부야구 태생(1949년)으로 부모가 임신하고 3개월 후에 준코(順子) 씨도 임신(1966년)하였는데, 히비야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 때였습니다.

준코 씨는 고등부 시절 ‘세계광포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어학도 열심히 공부했고 또 우수했습니다. 도쿄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병간호를 하면서 수험공부를 한 탓에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세에 뜻하지 않았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뒤를 따르듯이 아버지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천애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하계강습회에서였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녀에게 저는 “그런가요. 하지만 그 나이라면 앞으로 두 번은 반드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부모님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한 번에 경험했을 뿐입니다. 어본존님이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의 진수를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본유의 생사’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성인은 약왕품의 경문조차도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일체의 고(苦), 일체의 병통(病痛)을 떠나서 능히 일체의 생사의 속박을 벗어나게 하느니라”(법화경 602쪽)는 경문입니다.

사이토 교학부장 : 이 ‘떠난다’ ‘벗어난다’는 것은 번뇌즉보리, 생사즉열반이라는 법화경의 마음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성인은 “이(離)의 자(字)를 명(明)이라고 읽느니라. 본문수량(本門壽量)의 혜안(慧眼)이 열리고 보면 본래본유의 병통고뇌(病痛苦惱)라고 분명해지니”(어서 773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해지니’란 ‘분명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본유상주의 병통고뇌’라는 것과 ‘본래본유의 생사’임을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

SGI회장 : 그렇습니다. ‘생사’라 해도 우주생명의 변화상입니다. 부처의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사’를 싫어하는 것은 부처의 생명을 싫어하는 것으로도 통합니다. 또 생사의 괴로움에 빠지는 것은 부처라는 대생명을 지니고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 태어난 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생(生)의 괴로움도 신심을 강하게 하는 양식으로 한다. 사(死)의 괴로움도 신심을 강하게 하는 양식으로 삼는다. 그것이 생사즉열반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준코 씨는 어린 나이로 괴로웠겠지요. ‘미야하라(宮原) 그룹’이라는 여자부 인재그룹의 일원이 된 그녀를 저는 종종 격려했습니다. 모두 함께 농장에 가서 수박이나 옥수수를 먹었던 일도 그립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도 또 여자부 활동에서도 타고난 ‘명랑함’과 ‘강인함’으로 눈에 띄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난 뒤 고등부 때부터의 ‘꿈’을 이루어 동경하고 있던 스페인으로 유학할 수 있었습니다.

창제가 천만 편이 되었을 때, 스페인에 도착한 지 2주일 만에 스페인에 처음으로 지부가 결성되어 지부결성식에서 초대 여자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초창기의 스페인에서 “카톨릭의 대지에 제목을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언제나 제목을 올렸습니다.

좌담회에 가는데 승용차로 왕복 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합에서 돌아오면 날이 밝을 때까지 어서나 대백련화를 한 자 한 자 번역해 갔습니다.

준코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생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스페인 사람이 한 사람 일어설 때마다 환희로 바뀝니다. 반석 같은 일본의 창가학회밖에 몰랐던 저에게는 힘들다기보다도 초창기의 노고를 체험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큼니다”라고.

그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 또 다시 ‘시련의 탄환’이 엄습해 왔습니다.

왼쪽 무릎에 망을 같은 것이 있어 일본에 귀국하여 검사를 해보니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의사는 왼쪽 다리의 발목부터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춰버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성불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어머니의 유언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준코에게는 어본존님이 계시잖니, 너에 관한 모든 것은 어본존님께 부탁해 놓았으니 아무 걱정 없어...” 라고.

‘그렇다, 이런 때를 위해서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나에게 신심을 가르쳐주신 것이 아닌가!’ 그녀는 결심하고 일본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리의 절단만은 모면했으나 50바늘이나 꿰매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주치의로부터는 ‘평생 걷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그녀는 ‘스페인의 동지를 위해 반드시 다시 걸어 보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병마와 싸웠습니다.

돌처럼 굳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왼쪽 다리였는데 수술한 지 수십일 후, 엄지발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앗! 움직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술할 때 도려냈던 무릎의 살이 조금씩 돌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활치료에도 집념을 다해 투쟁하여 수술한 지 7개월 후, 의사의 “당신의 몸은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환송 받으며 자신의 발로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피눈물나는 투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광선유포하겠다’고 전 생명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두 다리로 스페인의 대지에 섰던 것입니다.

1979년 4월, 제가 제3대 회장직의 용퇴를 발표했던 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분발했

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력적, 금전적인 문제도 있어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후로도 어디에 절복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즉시 뛰어가 체험담을 말하고, 괴로워하는 회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달려가 격려했습니다.

또 국제부 번역그룹으로도 활약했습니다. 개인 절복도 10명 이상이나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리 종양을 앓고 있는 소녀도 격려하게 됩니다. 소녀는 그 격려에 감격, 발심하여 마침내 창가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스다 : 들으면 들을수록 ‘어중간한 신심이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숙연해집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일까!’

SGI회장 : ‘언제 쓰러질는지, 아니 언제 쓰러지더라도 후회 없는 투쟁을 계속할 뿐이다’라는 결심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나가와 문화회관에서 만났습니다. <1980년 12월 14일>

번역그룹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님의 소원’을 합창해 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준코 씨는 한 수의 단가를 명예회장에게 바쳤습니다. “병마를 타파하여 광포를 위해 달리리라, 스승과 함께 오늘의 모임을 가슴에 새기고”라는 단가였습니다.

SGI회장은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건강해져야 합니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회관에도 그녀는 와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기념촬영도 했습니다. <1981년 6월 14일>

그녀가 사망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인 1982년 6월 26일이었습니다. 암은 폐로 전이(轉移)되어 있었습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몸은 날로 쇠약

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준코 씨는 제목을 계속해서 불러 나갔습니다. 일본과 스페인 동지들을 위해 기원해 갔습니다.

말기가 되어서도 심호흡을 하고는 “남(南無) - ”, 또 심호흡을 하고는 “묘(妙) - ” 라고 제목을 불렀습니다. 스페인에 처음 건너온 후, 두 번째 ‘천만 편’창제에 도전하여 5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임종했을 당시는 세 번째 ‘천만 편’ 창제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살겠다!’는 장렬하기까지 한 그녀의 집념에 간호사들도 감동했다고 합니다.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격려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몸에 불꽃을 점화하여 사람들에게 빛을 보냈던 것입니다.

8개월의 투병 생활 끝에 그녀는 32세로, 다음 생(生)을 향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잠든 듯한 그녀의 얼굴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예쁜 준코 씨의 모습은 살아 있을 때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化粧)도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손도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얼굴도 살찌 보였습니다 .”라고.

원래 피부가 검은 편이었고,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는 야위어서 안색도 몹시 나빴습니다. 그런데 새하얗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천양지차. ‘진정한 성불의 상이란 이런 것인가하고 생각했습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장터의 직원도 “이렇게 예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화장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약간의 웃음을 띤 반안반구(半眼半口). 어서 말씀 그대로의 성불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까”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대성인은 성불한 사람의 죽음을 “천불(千佛)까지도 마중을 나오시어 손을 잡으실 것이니”(생사일대사혈맥초 1337쪽)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그 하나의 현증이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제목을 불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보살피 준만큼 자신이 삼세 영원히 수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친구들은 “준코는 정말로 행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애고독(天涯孤獨) 그리고 병사(病死), 하지만 준코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준코가 불쌍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했다’ ‘모든 걸 해냈다’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금도 슬프지 않습니다. 준코는 이미 스페인에 있을 거예요. 스페인에 태어나서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이트 : 약왕품이군요. 불로불사라 해도 인생을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로불사 - 생사를 초월하여 사명을 위해

SGI회장 : 그녀의 ‘몸’은 병들었으나 ‘마음’은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건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듬해(1983년)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그녀를 칭찬하여 최초의 ‘명예 유럽 여자부장’이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그 결론은 ‘보살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일념,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건강식품’을 먹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안락한 생활을 원하는 것이 건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상징하는 약왕은 신념(信念)을 위해 ‘순교’했던 보살이었습니다. ‘싸우는 생명’ 그것이 ‘건강한 생명’

입니다.

저도 만난 적이 있는 루네 듀보스 박사(세계적 의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세계에서 스트레스도 일체의 왜곡(歪曲)됨도 없는 생활을 상상하는 것은 마음 즐거운 일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게으름뱅이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또 “지구는 휴식처가 아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전진해가는 정서적, 지능적, 윤리적 발전을 위해서 싸우도록 선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험의 한복판에서 뺏어가는 것이야말로 혼의 법칙이므로 그것이 인류의 숙명인 것입니다.”라고. (『건강이라는 환상』속에서)

스트레스나 고뇌마저도 생명력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것이 ‘독을 약으로 바꾸는 <변독위약(變毒爲藥)>’ 묘법입니다.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자’는 불법의 경애의 실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 앞에는 생도 사도 없습니다. 이 헌신(獻身) 앞에는 사(死)의 괴로움마저도 전진의 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통분은 수량품·방편품의 ‘수행방식’을 설하고 있다고 대성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어서 1499쪽)

약왕품도 ‘말법의 광선유포의 전사여! 약왕보살과 같이 목숨을 불태워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청년들이 잇따라 나타났을 때 창가학회 전체가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로불사의 교단’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미래에 걸쳐 영원히 전인류에게 ‘치유의 광명’을 찬란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 법화경의 지혜 ‘약왕보살본사품’에서